

[박물관의 도시]

력사 속에 묻힌 동관제묘—길림과 동년배



후한 말년의 명장 관우는 충성과 용기, 의리로 인해 민간에서 ‘관제’ (关帝)로 숭배받아왔다. 청조 시기, 길림 시가지 (吉林省)와 주변 지역에는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많은 관제묘가 건립되었다.

현재 길림시 북산공원 동봉에는 청조 강희 40년 (1705년)에 건립된 관제묘의 향불이 여전히 성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길림 시가지 소동문 밖 (현 세무만금호텔 자리)에 북산 관제묘보다 규모가 더 크고 력사가 더 오래된 동관제묘가 있었다는 점이다.

력사적 기원

력사자료에 따르면 길림 시가지가 건설될 당시 성 내외에는 이미 성황묘, 서방사, 관제묘 등 사찰이 세워져 있었다. 청조 도광년간의 《길림외기》

는 동관제묘에 대해 ‘시가지 소동문 밖 반리 지점에 위치, 정전 3칸, 향전 3칸, 좌우 배무 각 8칸, 종루, 고루, 회루 각 1개, 대문 3칸, 동서문 각 2

개’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력사자료에서는 동관제묘가 청조 건륭 9년 (1744년)에 건립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이른 시기



년간 세금 5 억, 길림시의 ‘다크호스’ 대흑산몰리브덴

영길현 서양진에 위치한 길림대흑산몰리브덴유한회사 (吉林大黑山钼业股份有限公司)에 들어서면 신규 공장 건물과 컨테이너 벨트 통로들이 어우러진 웅장한 건축군이 한눈에 안겨온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의 건물이 바로 회사의 3.2만톤/일 선광 (选矿) 공사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신규 공장이다.” 대흑산몰리브덴 관계자 미홍광은 이렇게 소개했다. 연간 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길림시 다크호스 (黑马)로 불리는 대흑산몰리브덴은 몰리브덴 채굴, 선광, 골재 (骨料) 가공을 아우르는 종합 광산 기업이다. 전신은 1985년 설립된 길림시몰리브덴광산으로 그 뒤로 여러차례의 개편과 변경을 거쳐 2019년 6월, 중택지주그룹 (中泽控股集团)의 자회사로 되었다.

현재 대흑산몰리브덴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단일 몰리브덴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매장량은 16.5억톤, 몰리브덴 금속 함량은 109만톤에 달한다. 2022년 서란천지몰리

브덴회사를 인수한 후 몰리브덴 자원 총보유량은 134만톤으로 늘었고 몰리브덴 정광 (精矿) 연간 공급 능력은 3.5만톤, 국내 류통시장 점유율은 1위를 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생산액 15.8억원, 납세액 5억원을 달성했다.

미홍광이 언급한 3.2만톤/일 선광 공사 개축 확장 프로젝트는 총투자액이 10.1억원으로 기존의 1.35만톤/일 생산능력을 토대로 1.85만톤/일 선광 생산 시스템을 확장하여 자체 자원을 생산 규모와 일치하게 하는 사업이다.

미홍광은 수십미터 높이의 볼밀 (球磨机)과 부선기 (浮选机)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것들은 모두 최첨단 장비입니다.” 지난해 3월 18일 착공식을 거친 후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주요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광석 파쇄 작업 구간은 시운전을 마쳤고 분쇄 작업 구간은 단체 (单体) 시험 운행을 완료했으며 부선 (浮选) 작업 구간은 설치를 마무리중이다.

“우리는 6월까지 전체 라인을 연결해 시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완료 후 연간 추가 매출 10억원, 세금 1.76억원, 리운 5억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홍광은 기업의 확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대흑산몰리브덴은 영길현정부에서 지지하는 기업으로 3.2만톤/일 선광 공사 개축 확장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현정부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2024년 9월, 프로젝트에 전력 공급 라인 개조가 필요했을 때 영길현정부는 전력부문과 협력해 영길변전소에서 서양진 찰락촌 (撤落村)까지 18키로미터의 전력 라인을 확보했다. 기존 라인과 새로운 라인 전환 및 시험으로 정전이 필요했을 때 영길현정부는 또 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전 시간을 72시간에서 22시간으로 단축시켜 약 1,000만원의 생산액 손실을 막았다.

“건설 과정에서 주택건축, 음급안전 등 부서의 사전 지도와公安부문의 지

인 청조 강희 12년 (1673년)에 산서 상인들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안주호 (安珠瑚)가 송화강가에 길림 시가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해 동관제묘는 길림 시가지와 동년배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의 구조와 확장

동관제묘는 여러차례 중복 건설과 확장을 거쳤다. 청조 광서 14년 (1888년) 마지막 주요 구조를 완성했는데 정전, 삼대전, 배전, 종루, 고루, 회루, 마전 등이 갖추어졌다.

특히 1929년 일본 건축학자 무라타 지로가 측정한 평면도에 따르면 동관제묘는 북산 관제묘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며 정전과 삼대전 사이에 추가로 대전이 있었다.

제사와 민간신앙

동관제묘는 주로 관우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불교, 도교, 유교가 혼합된 다신 숭배의 성격을 띠었다.

후진인 대웅각에서는 옥황상제, 룡왕, 화신, 자손마마 (子孙娘娘) 등의 제사를 지냈고 서이방에는 주선사가 있었다. 특히 매년 음력 4월 18일에는 자손마마를 위한 대규모 묘회가 열렸다.

문화유산의 상실

1934년 길림 시가지 영구 제방 건설로 동관제묘가 철거되었고 현재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일부 유물은 북산 관제묘로 옮겨졌지만 많은 비문과 편액은 소실되었다.

/ 강성일보

경극 전시 월간 행사

‘제 2의 경극 고향’ 길림시에서



—길림성경극원 〈호가장〉, 〈우자후〉, 〈오파류수〉 (五派流水) 등 명작 무대에 올라

길림시군중예술관과 길림시경극 전승보호센터에서 공동 기획한 ‘사회구역 경극 전시 월간 행사’가 화려한 마지막 장을 맞이했다.

6월 22일 오후 3시, 길림성경극원은 ‘올스타’ (全明星) 멤버들을 이끌고 길림시 화련성 (惠连成) 경극 예술공원에서 고품격의 경극 공연을 선보이며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련속 사흘간 화련성경극예술공원에서 열린 다채로운 공연은 길림시 경극애호가들의 관심어린 관람과 함께 많은 호평을 받았다.

“유명 경극 배우들의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아마추어 연기자들에게도 좋은 학습 기회였다.” 풍만구문화관 경극팀원인 60대 고효원은 이번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무대 우아에서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품격 경극 공연이 열리길 바란다.”며 “장춘과 길림의 경극단체들이 협력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경극을 사랑하고 경극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림시는 ‘제2의 경극 고향’으로 불릴 만큼 력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로 1904년 길림시의 사업가인 우자후가 회 (부) 련성사경극학교를 설립하면서 경극 인재 양성이 본격화, 체계화, 과학화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6년에는 회 (부) 련성사가 길림시군중예술관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1958년 설립된 길림성경극원은 모세래, 송덕수, 왕옥용, 서풍, 류희량, 오양갑인, 배영걸 등 중화권 전역에서 명성을 떨친 경극공연 예술가들을 배출해왔다

최근 몇년간 이 극단은 배우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경극을 꾸준히 선보이며 중국 문화예술계의 최고 권위 상인 문화상 (文华奖)과 중국 희극 대화상 등 국가급 상들을 수상하는 실적을 쌓아왔다. 이에 따라 전국 경극계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경극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무송융합매체

동시장문화거리, 길림시 새 랜드마크로

길림시 백년 동시장문화거리에 ‘동관시방 (东关市场) 1907’이 오픈했다.

‘동관시방 1907’은 태원거리와 장사로를 중심으로 ‘미훈’ (微醺), ‘양생’ (养生), ‘동북’ (东北) 3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미훈’구역에는 공연장과 바가 마련되어 시민들은 빛과 음악 속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양생’구역에서는 낡은 컨테이너로 만든 야외무대에서 ‘상해의 밤’ (夜上海) 스타일의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동북’구역에서는 지방 특색을 살린 양갈춤 공연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열린다. 여러 구역에서는 또 지방 특산물과 특색 음식이 판매된다.

‘동관시방 1907’ 개장과 함께 다

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100여개 점포가 참여하는 전시 료식 할인쿠폰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바 도시의 소비 활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특색 있는 관동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장화투자경영유한회사 민병년 총경리는 “이곳은 근대 력사문화와 상업의 흔적이 응축된 장소로 무수한 길림사람들의 추억과 정서가 깃들어있다.”며 ‘동관시방 1907’이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공간으로 길림의 특색문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며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무송융합매체



/ 강성일보